

기록 일자 : 2023.11.28.

- 제1차 ‘청구서’ 회의 - 결과 보고서

청소년 사목국

목차

1. 청소년위원회 제1차 ‘청구서’ 보고서 P3 ~ 9
 - I. 설문 개요
 - II. 설문 결과 주요의견 [총괄]
 - III. 총평 (설문 조사)

2. 제1차 ‘청구서’ 참가자 발표 보고 P10 ~ 16

1. 청소년위원회 제1차 ‘청구서’ 보고서

명칭	2023년도 제1차 ‘청구서’	세부명칭	청춘, 청년, 청소년을 구하는 서로의 대화
일 시	2023.11.11. (토)		
장 소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강당		
주 제	청년, 청소년 사목 활성화를 위한 작전 및 친목 도모		
회의 내용 (간략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사전 설문 결과 발표 ★ 나눔 1, 2 : 자기소개 및 나의 청소년 시기의 신앙 이야기 ★ 나눔 3, 4 : 청소년 사목 실현 방안 작전 짜기 ★ 전체 나눔 시간 		
참석자	청소년, 청년, 학부모, 교리교사, 사제, 수도자, 퍼실리테이터, 진행자, 발표자, 스태프 총 약 75명		

설문 조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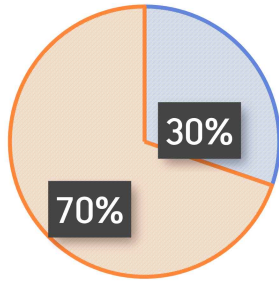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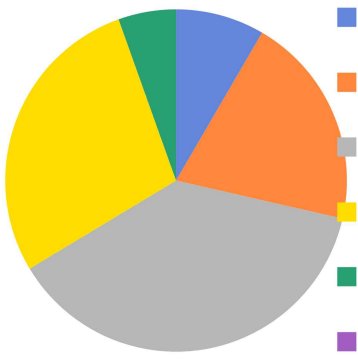
I. 설문 개요		
기 간	설문 조사 기간 : 2023.08.18. (금) ~ 2023.08.28. (월) 설문 조사 분석 기간 : 2023.08.28. (금) ~ 2023.08.30. (일)	
대 상	직접 대상자 (청소년, 청년)	간접 대상자 (교리교사, 부모, 사목 위원 등)
방 법	▶ 직접 대상자와 간접 대상자를 나누어 2개의 설문 실시 ▶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웹으로 설문 조사 실시	
설문 목적 & 방향성	✓인원의 한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교회의 상황들, 구성원들의 가치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 확보	
설문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직접 대상 설문지■</div> ▶ 객관식 : 인적사항,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의 동기,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요즘 하고 있는 고민, 고민이 생겼을 때 주로 상의하는 대상,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의하는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별표 표시 질문 6개 : 신앙생활에서의 나에 대한 질문 ▶ 서술식 : 현재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과 부족한 점 등 하고 싶은 말	
	<div style="text-align: center;">■간접 대상 설문지■</div> ▶ 객관식 : 청소년 사목에서의 자신의 역할,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청소년들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상담해 준 유무, 청소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별표 표시 질문 7개 : 본당의 상황에 대한 질문 ▶ 서술식 : 현재 청소년 사목을 위해 제안하고 싶거나, 바라는 점 등 하고 싶은 말	
설문 응답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 직접 대상자 293명 (청소년, 청년, 대학생)</div> <div>■ 간접 대상자 576명 (교리교사, 부모, 사목 위원)</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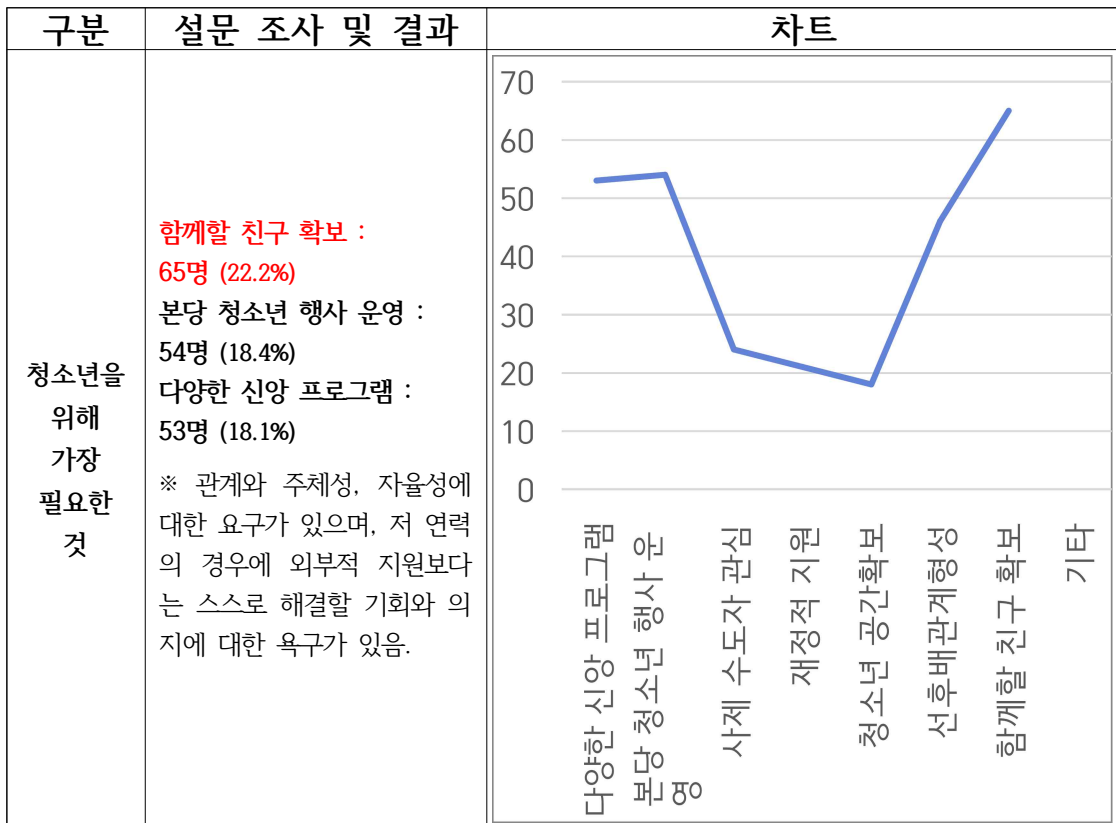
Ⅱ. 설문 결과 주요의견 [총괄]

※ 주요 문항만을 골라서 기재하였습니다. 그래프의 숫자 표시는 응답자 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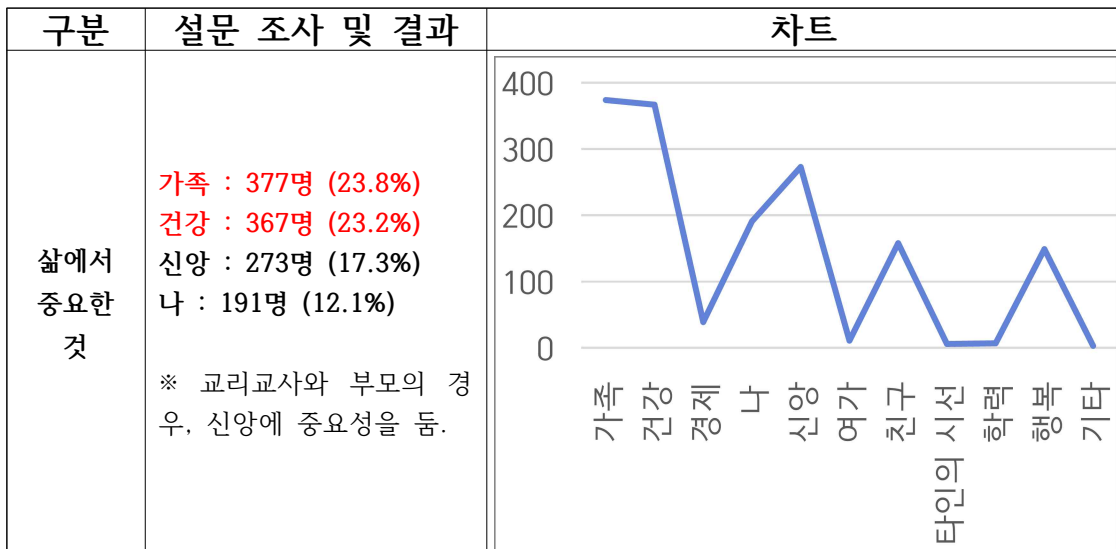
■직접 대상자■

구분	설문 조사 및 결과	차트
삶에서 중요한 것	<p>가족 : 185명 (22.6%) 건강 : 180명 (22%) 나 : 136명 (16.6%) 경제 : 125명 (15.2%)</p> <p>※ 청소년, 대학생, 청년(남)의 경우 '가족, 건강, 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았고, 청년(여)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은 편임.</p>	
요즘 고민	<p>진로(취업) : 146명 (26.4%) 학업 : 96명 (17.3%) 타인과의 관계 : 70명 (12.6%) 경제적 어려움 : 54명 (9.7%)</p> <p>※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진로와 학업이 높았고 청년의 경우, 진로와 경제적 어려움이 높았음.</p>	
고민 상의 대상	<p>혼자서 해결 : 100명 (34%) 친구 : 85명 (29%) 어머니 : 57명 (20%)</p> <p>※ 혼자서 해결, 어머니, 친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다수임.</p>	

구분	설문 조사 및 결과	차트
신앙생활 나의 모습 살펴보기 ※별표 문항	<p>성경 문항 : 평균 1.85</p> <p>성경 외 문항 : 평균 4.06 ~ 3.57</p> <p>※ 평균이 5에 가까울수록 높은 만족</p> <p>※ 청소년의 경우 단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높았으며, '자주 성경을 읽는다.' 문항 외에는 모두 높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을 느낀다 ■ 자주 성경을 읽는다 ■ 단체활동에 능동적 참여 ■ 단체활동이 신앙에 도움이 됨 ■ 기도가 긍정적인 영향임
현재 신앙생활 고민	<p>있다 : 88명 (30%)</p> <p>없다. : 203명 (70%)</p> <p>※ 청년의 경우, 신앙에 대한 고민이 높은 편임. (‘있다’를 선택한 대다수가 청년)</p>	<p>■ 있다 ■ 없다</p> 
신앙의 고민 상담 대상	<p>부모 : 90명 (38%)</p> <p>친구, 선배 : 67명 (28%)</p> <p>사제, 수도자 : 48명 (20%)</p> <p>※ 주로 편안한 관계 (부모, 친구 등)과 주로 신앙의 고민을 나눔.</p> <p>※ 청년의 경우에는 사제, 수도자에게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경우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 사제. 수도자 ■ 부모 ■ 친구, 선배 ■ 기타



■간접 대상자■



구분	설문 조사 및 결과	차트																				
요즘의 고민	진로(취업) : 315명 (21.6%) 타인과의 관계 : 257명 (17.6%) 학업 : 220명 (15.1%) 중독 : 192명 (13.1%) ※ 청소년들의 고민이 중독 (컴퓨터, 게임 등)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청소년의 입장 : 1시간만 게임을 해도 부모님들 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table><thead><tr><th>고민 주제</th><th>빈도 (명)</th></tr></thead><tbody><tr><td>중독(컴퓨터/게임)</td><td>192</td></tr><tr><td>타인과의 관계</td><td>257</td></tr><tr><td>학업</td><td>220</td></tr><tr><td>외모</td><td>~100</td></tr><tr><td>이성문제</td><td>~100</td></tr><tr><td>진로(취업)</td><td>315</td></tr><tr><td>신앙문제</td><td>~100</td></tr><tr><td>부모와의 관계</td><td>~150</td></tr><tr><td>기타</td><td>~50</td></tr></tbody></table>	고민 주제	빈도 (명)	중독(컴퓨터/게임)	192	타인과의 관계	257	학업	220	외모	~100	이성문제	~100	진로(취업)	315	신앙문제	~100	부모와의 관계	~150	기타	~50
고민 주제	빈도 (명)																					
중독(컴퓨터/게임)	192																					
타인과의 관계	257																					
학업	220																					
외모	~100																					
이성문제	~100																					
진로(취업)	315																					
신앙문제	~100																					
부모와의 관계	~150																					
기타	~50																					
우리 본당의 상황 살펴보기 ※별표 문항	공동체의 협력 필요성 : 평균 4.49 가족 신앙의 중요성 : 평균 4.57 ※ 평균이 5에 가까울수록 높은 만족 ※ 협력적 청소년 사목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 으나 각자의 기여도가 낮음. 가정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내 신앙 나눔이 많지 않음.	<table><thead><tr><th>항목</th><th>인식 정도 (상대적)</th></tr></thead><tbody><tr><td>신앙안에서 즐겁게 생활함</td><td>높음</td></tr><tr><td>쉬는 청소년이 많음</td><td>중간</td></tr><tr><td>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td><td>높음</td></tr><tr><td>나의 기여도</td><td>낮음</td></tr><tr><td>본당내 유기적 청소년사목 협력</td><td>중간</td></tr><tr><td>가족신앙의 중요성</td><td>높음</td></tr><tr><td>우리가족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눔</td><td>중간</td></tr></tbody></table>	항목	인식 정도 (상대적)	신앙안에서 즐겁게 생활함	높음	쉬는 청소년이 많음	중간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	높음	나의 기여도	낮음	본당내 유기적 청소년사목 협력	중간	가족신앙의 중요성	높음	우리가족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눔	중간				
항목	인식 정도 (상대적)																					
신앙안에서 즐겁게 생활함	높음																					
쉬는 청소년이 많음	중간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	높음																					
나의 기여도	낮음																					
본당내 유기적 청소년사목 협력	중간																					
가족신앙의 중요성	높음																					
우리가족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눔	중간																					
신앙 상담 경험	있다 : 54% 없다 : 46% ※ 간접 대상자의 경우, 경험이 많다고 하였으나 실제 대상자의 경험에서 는 상담자 비율이 낮음.	<table><thead><tr><th>경험 여부</th><th>비율 (%)</th></tr></thead><tbody><tr><td>있다</td><td>54%</td></tr><tr><td>없다</td><td>46%</td></tr></tbody></table> <div>□ 있다 □ 없다</div>	경험 여부	비율 (%)	있다	54%	없다	46%														
경험 여부	비율 (%)																					
있다	54%																					
없다	46%																					

구분	설문 조사 및 결과	차트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p>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 32.5%</p> <p>본당 청소년 행사 운영 : 17.2%</p> <p>선후배 관계 형성 : 13.9%</p> <p>교리교사 확보 : 5.2%</p> <p>※ 교리교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p>	<p>■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 본당 청소년 행사 운영 ■ 사제 수도자 관심 ■ 재정적 지원 ■ 청소년 공간확보 ■ 선후배관계형성 ■ 교리교사확보 ■ 기타</p>

Ⅲ. 총평(설문 조사)

○ 가정신앙의 중요성

★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 가족 모두가 천주교 (69%)이며, 모태신앙(45%)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접 대상자(청소년, 청년) 응답자들은 대다수 신앙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아쉬운 점** : 교회 밖의 직접 대상자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점과 생각보다 적은 응답을 활용하여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부분의 직접 대상자 (청소년, 청년)들은 일반 고민과 신앙적인 고민에서 혼자서 해결 (34%)하려는 경향성이 강하게 보였다.

⇒ 마음이 단단한 직접 대상자 (청소년, 청년)들은 잘 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들도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 삶의 중요한 가치

★ 직접 대상자와 간접 대상자가 모두 ‘가족,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하였다.

○ 현재의 고민에 대한 시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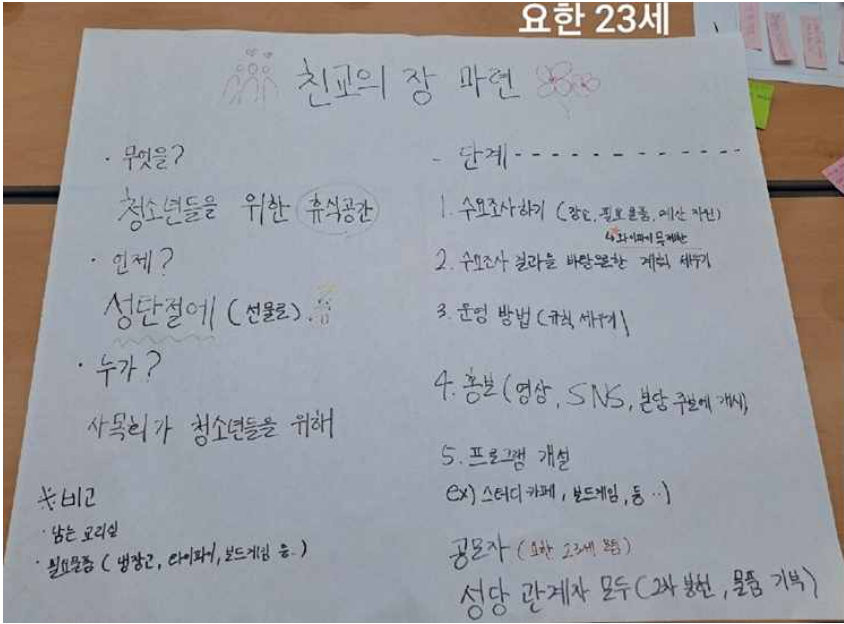
★ 직접 대상자들은 대부분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간접 대상자들은 직접 대상자들이 주로 ‘진로 (취업)’외에도 ‘중독,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 현재 필요한 사항 부분에서 직접 대상자들은 ‘함께할 친구 확보’, 간접 대상자들은 ‘교리교사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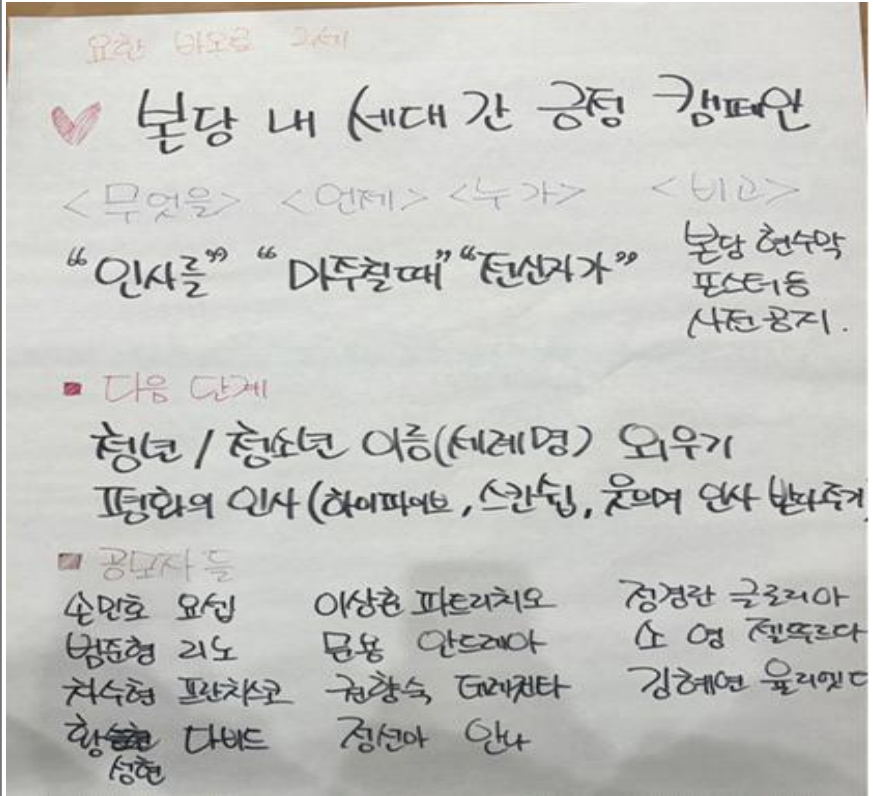
⇒ 직접 대상자 (청소년, 청년)와 간접 대상자의 시선 차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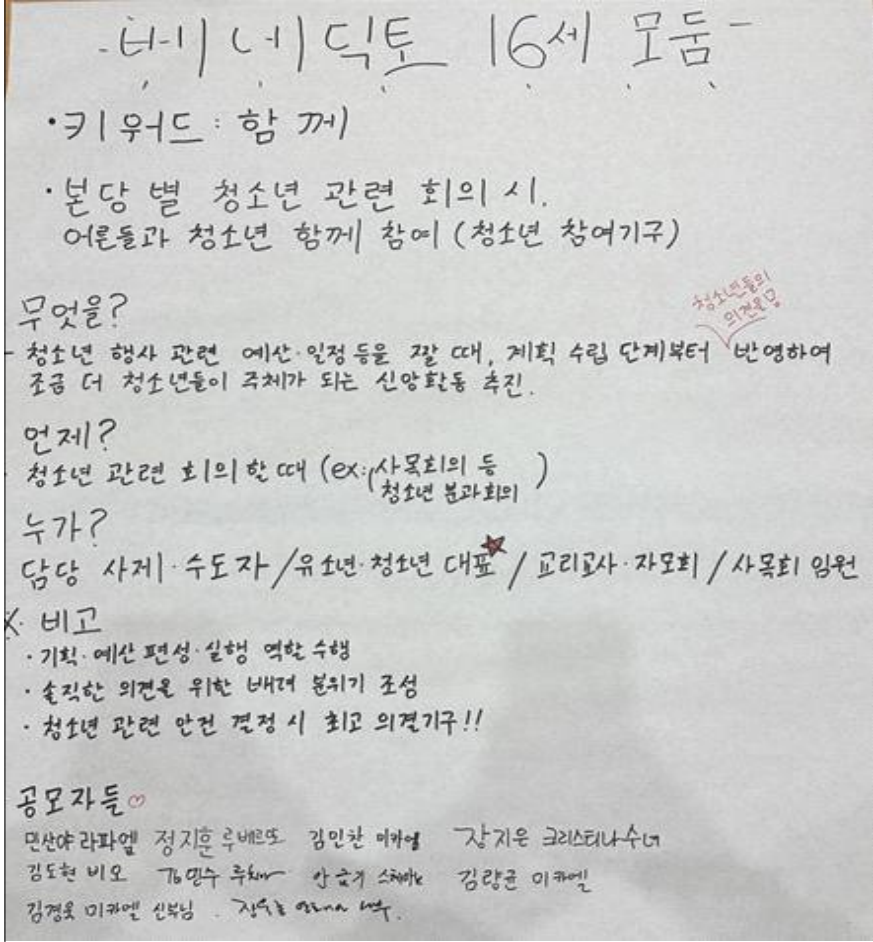
⇒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지가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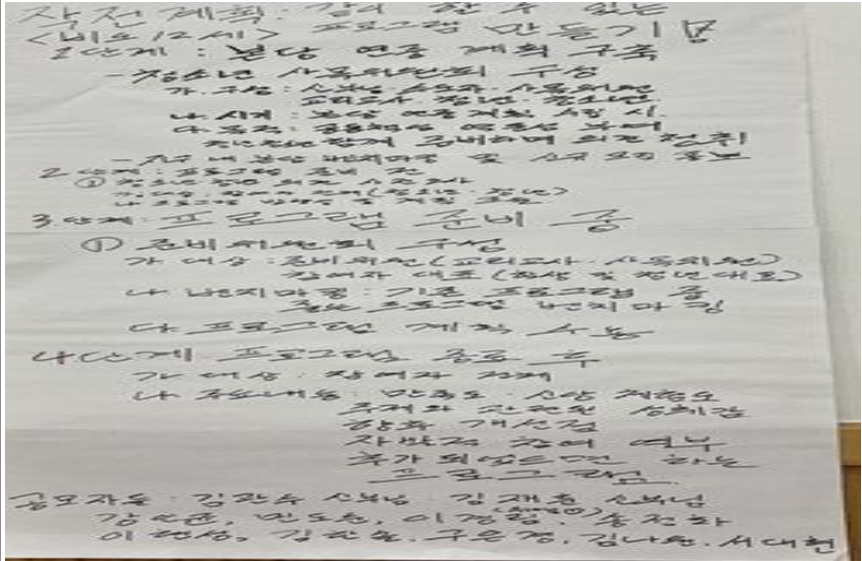
2. 제1차 '청구서' 참가자 발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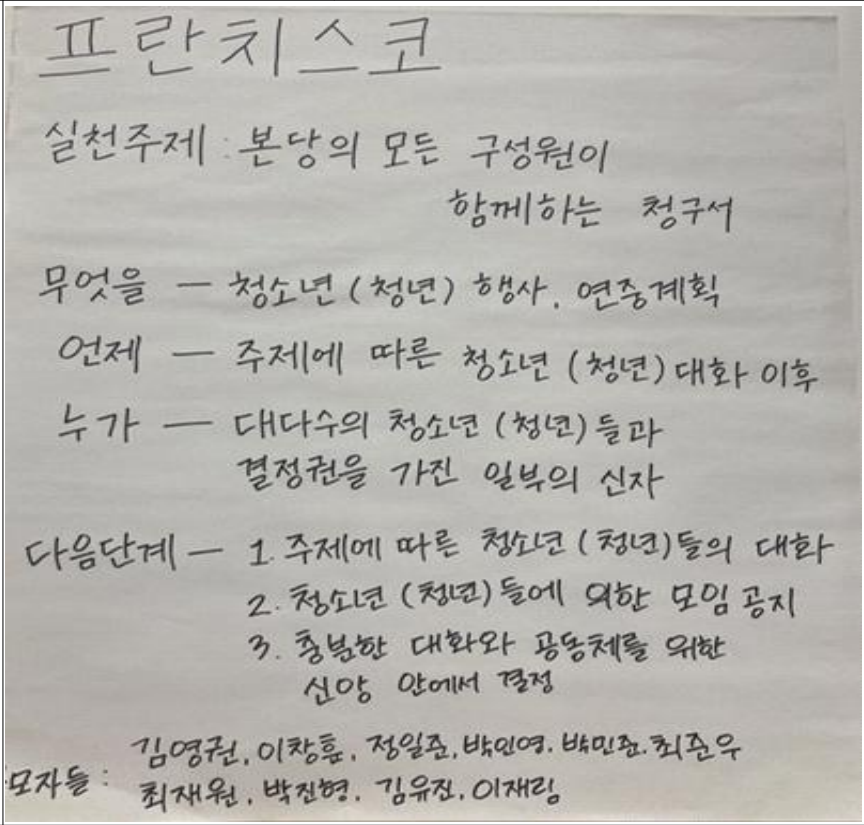
작성 일자	2023년 11월 11일 (토)	모듬	요한 23세
사진			
주제	친교의 장 마련		
내용	<p>-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성탄절에 사목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선물하기 (남는 교리실, 와이파이, 보드게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단계별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요조사 : 장소, 필요 물품, 예산 자원, 와이파이 무제한 등 2.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계획 세우기 3. 운영 방법 : 규칙 세우기 4. 홍보 : 영상, SNS, 본당 주보에 게시 5. 프로그램 개설 : 스터디 카페, 보드게임 등 <p>+2차 봉헌, 물품 기부</p>		
공모자	<p>Fr. 박시흥, Sr. 곽혜경, Tr.이현주, 박영숙, 서유진, 문윤지, 김기련, 정연석, 이동화, 이해경, 김희주</p>		

작성 일자	2023년 11월 11일 (토)	모듬	바오로 6세
사진	<p>실천 주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p> <p>바오로 6세</p> <p>*다음단계 (6주 이내 시행 가능)</p> <p>- 청소년·청년 축제를 통해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한지 의견공청 수요조사</p> <p>- 교구 공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수요조사 (제대로 된 설문지 만들기)</p> <p>그 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 장소 2. 공간에 대한 성격 (악기, 카페, 공부, 상담 등) 3. 운영 단체 <p>*공모자들</p> <p>송주영 마리아, 유 준 라파엘, 장 비오 신부</p> <p>유호정 스텔라, 이정희 4녀, 심산아 베레카 박혜림 가브리엘</p> <p>강상구 베드로, 심 미 화 클라라</p>		
주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		
내용	<p>- 청소년, 청년 축제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한지</p> <p>의견 수요조사</p> <p>- 교구 공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수요조사 (제대로 된 설문지 만들기)</p> <p>이후에 설립장소, 공간에 대한 성격(악기, 카페, 공부, 상담 등), 운영 단체 생각해보기</p>		
공모자	Fr.장현욱, Fr.강상구, Sr. 이정희, 송주영, 유 준, 유호정, 심산아, 박혜림, 심미화		

작성 일자	2023년 11월 11일 (토)	모듬	요한 바오로 2세
사진			
주제	본당 내 세대 간 긍정 캠페인		
내용	<p>전 신자가 마주칠 때 인사 잘하기 (본당 현수막, 포스터 등 사전에 공지하기)</p> <p>-청년과 청소년의 이름과 세례명을 외우기 -평화의 인사 (하이파이브, 스킨십, 웃으며 인사받아주기)</p>		
공모자	Fr.이상훈, Fr.손민호, Sr.권향숙, 정선아, 황성현, 김혜연, 차수현, 소영, 문용, 범준형, 정경란		

작성 일자	2023년 11월 11일 (토)	모듬	베네딕토 16세
사진			
주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기구 필요		
내용	<p>키워드 : 함께</p> <p>- 모든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 관련 회의를 할 때, 청소년 행사 관련 예산과 일정을 짤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 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신앙 활동을 추진</p> <p>- 기획과 예산 편성과 실행 역할을 수행</p> <p>- 솔직한 의견을 위한 배려 분위기 조성</p> <p>- 청소년 관련 안전 결정 시 최고 의결 기구가 나올 수 있다.</p>		
공모자	Fr.장옥종, Fr.김경옥, Sr.장지은, 민산야, 정지훈, 김민찬, 김도현, 김민수, 안금기, 김량균		

작성 일자	2023년 11월 11일 (토)	모듬	비오 12세
사진			
주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내용	<p>1. 본당 연중 계획 구축 : 청소년 사목위원회 구성 가. 구성 - 신부님, 수도자, 사목 위원, 교리교사, 청년, 청소년 나. 시기 - 본당 연중 계획 수립 시 다. 목적 - 공동책임 역동성 부여 (청소년, 청년이 함께 준비하며 토의)</p> <p>-지구 내 본당 벤치마킹 및 신규 모집 홍보</p> <p>2. 프로그램 준비 전 -청소년과 청년 의견을 사전 조사하여 프로그램 방향성과 계획 조율하기</p> <p>3. 프로그램 준비 -준비위원회(교리교사, 사목 위원), 참여자 대표(청소년 및 청년대표)를 구성하여 벤치마킹하기(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프로그램 계획 수용</p> <p>4.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는 시간 갖기</p>		
공모자	Fr.김관수, Fr.김재훈, Sr.이경림 강인균, 민도순, 송정화, 이현성, 김한솔, 구은경, 김나원, 서대현		

작성 일자	2023년 11월 11일 (토)	모둠	프란치스코
사진	 <p>프란치스코</p> <p>실천주제: 본당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청구서</p> <p>무엇을 — 청소년 (청년) 행사, 연중계획 언제 — 주제에 따른 청소년 (청년) 대화 이후 누가 — 대다수의 청소년 (청년)들과 결정권을 가진 일부의 신자</p> <p>다음단계 — 1. 주제에 따른 청소년 (청년)들의 대화 2. 청소년 (청년)들에 의한 모임 공지 3. 충분한 대화와 공동체를 위한 신앙 안에서 결정</p> <p>모자들: 김영권, 이창훈, 정일준, 박인영, 박민준, 최준우 최재원, 박진형, 김유진, 이재림</p>		
주제	본당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청구서		
내용	<p>주제에 따른 청소년 (청년) 대화 이후에 청소년(청년) 행사 및 연중 계획을 대다수 청소년 (청년)들과 결정권을 가진 일부의 신자들이 구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에 따른 청소년 (청년)들의 대화 2. 청소년 (청년)들에 의한 모임 공지 3. 충분한 대화와 공동체를 위한 신앙 안에서 결정 		
공모자	Fr.김영권, Fr.이창훈, Fr.정일준, Sr.박선하, 이재림, 김유진, 박진형, 최준우, 최재원, 박인영, 박민준		

총평 (청.구.서. 돌아보기)

- ▶ 레크레이션과 찬양으로 오전과 오후를 시작해서 이야기하기 편안했으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 ▶ 나이대와 성별 관계없이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많은 본당의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청소년 사목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다양한 연령대가 만나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큰 의미가 있었고 이 자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 평소에 다양한 세대들 간에 소통의 기회가 적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신부님, 수녀님, 청소년, 교리교사 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너무 특별하고 좋았습니다.
- ▶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가능해서 놀라웠습니다.
- ▶ 어른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어서 좋았습니다.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 ▶ 과자 고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 ▶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내가 생각했던 문제점과 어려움 등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음이 위로가 되었고 기뻐했습니다.
- ▶ 앞으로 성당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 서로에 대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회의 진행 시간이 너무 길었고 중학생들이 먹기에는 점심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 ★ 분기마다 진행하여 이러한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습니다.
 - ★ 안건들의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 ★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기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 ★ ‘청.구.서.’가 어떤 것인지 사전에 안내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아쉬웠고 처음에 오기 싫었습니다.
 - ★ 홍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각 본당에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나 강사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중·고등부와 유소년 교리교사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이야기만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청소년에게는 성당이 몸과 마음이 쉬는 곳이며 즐거운 곳이기만을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다들 고생하셨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